

# 다가오는 캠핑시즌... 식품업계, 캠핑족 겨냥 간편식 '집중'

시장 규모 1.5조... 매년 상승세  
징검다리 연휴로 수요 증가 기대  
든든한 음식 간단히 즐길 수 있어

글램핑, 오토캠핑 등 캠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식품업계가 캠핑족을 겨냥한 간편식에 주목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2011년 60만 명에서 2016년 500만명 이상으로, 5년 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 시장 규모도 2008년 2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0월은 국경일이 평일과 휴일 사이에 끼여있는 '징검다리 연휴'로 캠핑을 즐기는 인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캠핑시즌을 맞은 캠핑족들에게 식사 준비가 번거로운 캠핑지에서 손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이 인기일 것으로 보인다. 보양식부터 간편 안주까지 다양한 간편식이 붓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캠핑족의 간편식 수요가 증가할 것



순살 닭다리구이 2종(왼쪽부터),이혜정의 일품 소한마리탕, /신세계푸드·엑셀 비프

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리연구가 박마마의 조리 비법을 담은 간편식 '이혜정의 일품 소한마리탕'은 캠핑장에서 따뜻한 아침식사를 간편하게 즐기길 원하는 캠핑족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제품이다. NS홈쇼핑에서 첫 판매 15분 만에 전량 매진을 기록한 이후, 7회 방송에 총 16만3000개의 완판되며 인기 물이 중이다. 제품을 개봉해 3~5분간 끓이거나 봉지째 7분 간 중탕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캠핑장에서 손쉽고 빠르게 든든한 아침식사를 즐길 수 있다.

'이혜정의 일품 소한마리탕'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북미산 프리미엄 소고기 브랜드 '엑셀비프(Excel)'의 갈비와 빅마마로 알려진 요리연구가 이혜정의 진한 비법 육수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았다. '엑셀 비프'는 국내 미국산 소고기 시장 점유율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2018년 5월 미국 PIRS 리포트 기준) 한국에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는 고품질 소고기 브랜드다. 해섭(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가정간편식 전문업체인 진한식품이 제조했으며, 보관성을 높인 포장 용기로 실은 보관이 가능해 캠핑장에서 보관 환경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편리하다.

대상 청정원 '안주야(夜)'는 서울 대표 맛집의 특별함을 담아 어디서든 간편하게 맛집의 안주를 바로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캠핑족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서울 대표 맛집인 논현동 실내포차 안주 스타일을 콘셉트로 맛집의 조리법에 청정원의 전문성을 더한 간편식이다. 출시 2년 만에 누적판매량 1500만개, 누적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인기를 증명했다.

'안주야(夜)'는 다양한 인기 맛집의 음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막창, 닭발, 곱창 등의 제품에 불에 구운 맛을 내기 위해 직접 불을 쓰는 직화공정을 설계하고, '데리야키훈제삼겹' 제품은 훈연공정을 적용했다. 볶음 요리는 커다란 솥에서 갖은 양념과 향미유 등을 사용해 볶는 공정을 도입했으며 해동, 전처리, 가열 등의 공정을 재료별로 최적화해 설계함으로써 제품의 주원료인 원물 본연의 맛을 살려냈다. 특히 대상의 60년 조미 노하우를 살린 특제 소스와 양념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을 구현했다.

신세계푸드가 선보이는 캠핑용 가정 간편식인 '순살 닭다리구이'는 닭다리살

고치구이, 철관구이 등 바비큐 재료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캠핑족들이 많이 찾는다. 지난 4월부터 GS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이후 5회차 방송까지 매회 6000 세트 이상 판매되며 누적 판매량 3만 3000세트, 매출액으로는 20억 원을 기록했다.

통 닭다리살을 오븐에 조리해 걸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기름을 뺀 치킨 스테이크의 맛이 특징인 신세계푸드 '순살 닭다리구이'는 소금구이 맛과 매콤한 맛 두 가지다. 소금구이는 소금과 후추 간에 로즈마리와 월계수 등 허브양념을 더해 담백함이 특징이다. 매콤한 맛은 올반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비법소스에 청양고추향을 더해 알싸한 맛을 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캠핑족이 증가하면서 캠핑장에서도 제대로 된 음식을 간편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가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캠핑족의 가정 간편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BYC 보디히트, /BYC

## 쌀쌀해진 가을 날씨 활용도 높은 제품 인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패션업계도 본격적으로 가을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능성 이너웨어부터 방풍, 방수 기능을 겸비한 자켓 등 체온 보호를 위한 가을 패션 아이템들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가을은 체감상 주기를 짧게 느끼는 계절인 만큼 활용도 높게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다.

BYC는 환절기에 적합한 기능성 발열 웨어 보디히트 반팔 제품을 선보였다. 보디히트 반팔 제품은 얇으면서도 보온성이 우수하고 신축성과 핏감이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하여 준외의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다. 보디히트는 광발열 기능의 솔라 터치 원사를 적용해 신체나 대기 중 적외선을 열에너지로 바꿔 보온성을 유지하는 발열 웨어다. 이 중 보디히트 반팔 제품은 일교차가 커지는 간절기나 긴 소매 제품의 착용감을 답답해하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선보인 제품이다.

블랙야크가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마모트'는 후디형 스웨트셔츠 2종을 선보였다. 마모트의 '코스탈후디'와 '마모트후디'는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 후디형의 캐주얼한 스타일로 일상에서는 물론, 아웃도어 활동이나 운동 시에도 활용도가 높다.

특히 흡습속건 기능성 소재인 '빅드라이'를 적용,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고 건조시간을 단축해 체온유지에 도움을 주며 쾌적함을 제공한다. /김민서 기자

## '밥맛'의 비결, 햅쌀 관리 잘 하는 법은?

맛·영양 유지 위해 보관법 중요  
습기·직사광선·냄새 신경써야

추석 이후 고향에서 갓 수확한 햅쌀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햅쌀은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 맛과 영양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일 애경에스티는 "햅쌀의 맛과 영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며 "특히 습하고 더운 여름철 벌레가 많이 생겨 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과 겨울철에도 실내온도가 높으면 쌀벌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계절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햅쌀 보관시 피해야 할 3가지 직사광선, 습기, 냄새

쌀이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빠르게 건조돼 금이 가고 그 사이로 전분이 빠져 나와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



홈즈 탈취탄 냉장고용, /애경산업

쌀은 흡수력이 강해 수분을 머금게 되면 금방 눅눅해질 수 있으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쌀을 퍼낼 때는 젓은 도구 사용을 자제하고 패트병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냄새관리가 중요하다. 햅쌀을 실온에 보관할 경우 10일 정도가 적당하며 더욱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냉

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장보관 시에는 각종 음식 냄새가 쌀에 배일 수 있으므로 전용 탈취제를 이용해 냉장고의 불쾌한 냄새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 애경에스티 '홈즈 탈취탄 냉장고용'은 일반 숯보다 탈취능력이 뛰어난 비정탄을 사용해 냉장고속 각종 음식물 냄새를 효과적으로 잡아 준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쌀벌레는 사전 예방이 중요

대표적인 쌀벌레인 쌀도적은 1년 이상 생존하며 한 달에 300~800개의 알을 산란해 생존율과 번식률이 뛰어나고, 화랑곡나방은 햅쌀의 단백질과 비타민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쌀벌레들은 쌀 안쪽에 알을 낳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쌀벌레 예방법으로는 통마늘이나 말린 붉은 고추를 쌀과 함께 보관하면 된다. 통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말린 붉은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쌀벌레 예방에 도움을 주며 쌀 20kg 기준으로 통마늘과 말린 붉은 고추를 3~4개 쌀 사이에 넣어주면 된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벌레퇴치에 탁월한 전용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애경에스티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은 거주주출물 등 미국 FDA에 등록된 100%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졌으며 쌀도적, 화랑곡나방 등 쌀벌레 퇴치에 효과적이다. 또한 곰팡이 방지 성분이 함유돼 사계절 내내 쌀의 고유의 맛과 영양 유지에 도움을 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100일... 홈플러스 매장 방문 '경충'

문화센터 수강생 전년비 47% ↑  
저녁 6시 이후 강좌 120% 상승

홈플러스는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8월 기준 시행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늘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홈플러스 문화센터 가을학기에는 저녁시간대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 강좌 수강생이 전년 대비 47% 이상 늘었다.

요가, 필라테스 등 피트니스 강좌는 물론 드럼, 바이올린, 캘리그라피, 수채화 등 힐링, 자기계발을 테마로 한 강좌를 찾아 수강하는 직장인이 늘어난 것이다. 2030 젊은 직장인 문세족을 공략한 이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고 있는 고객, /홈플러스

특히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평일 저녁 6시 이후 강좌 신청율은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젊은 직장인들의 신규수강 신청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30 젊은 직장인 문세족을 공략한 이

색강좌가 단연 인기다. 개인의 취향과 적성에 맞는 강좌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미니멀라이프 수납, 재테크, 비즈니스 스피치 등 직장인 관심분야를 주제로 한 이색 강좌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강좌의 경우 개설 하루 만에 등록이 조기마감 될 정도다. 평일 저녁시간대 아이와 엄마를 위한 베이비 강좌를 신청한 워킹맘은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다. 기존에 아이와 엄마가 함께 듣는 강좌는 주로 주말에 집중돼 있었지만, 눈치보지 않고 정시퇴근하는 분위기 덕분에 평일 저녁 강좌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게 되면서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 듣는 주말 베이비 강좌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탐앤탐스

#### 필리핀서 '파시그'점 오픈

탐앤탐스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지역에 필리핀 9호점 '파시그(PASIG)'점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마닐라시는 인구 1200만명이 거주하는 필리핀 최대 도시로 문화와 산업의 핵심이자 경제의 중심지다. 탐앤탐스파시그점은 학교와 오피스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현지 직장인과 학생들이 주 고객이다. 또 주변에 국제 학교가 자리해 우리나라에서 학업을 위해 이곳에 온 한국인들도 탐앤탐스 파시그점을 찾고 있다.

탐앤탐스 파시그점은 이미 필리핀 현지에서 검증된 탐앤탐스의 대표 메뉴 프레즐과 허니버터브레드를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고 오븐에 구워서 제공한다.

/박인용 기자